



보도 자료

즉시 보도

자동차 산업의 웹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해 W3C와 협력하는 제니비 연합

캘리포니아 샌 레먼- 2013년 5월 29일 - 제니비 연합(GENIVI Alliance)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동차 전문 기술을 W3C(World Wide Web Consortium)의 자동차 및 웹 플랫폼 비즈니스 그룹에 도입하기 위해서 W3C와 협력해 왔다.

개방형 차량내 인포테인먼트(IVI) 기준 플랫폼의 개발 및 채택을 주도하는 자동차 및 가전 산업의 연합체인 제니비 연합은 승용차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와 버스 인터페이스 등을 위한 HTML5 웹 애플리케이션용 API를 정의하는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.

2월에 출범한 W3C의 자동차 및 웹 플랫폼 비즈니스 그룹(www.w3.org/community/autowebplatform)은 개방형 웹 플랫폼(Open Web Platform)으로 주행, 안전 및 탑승자 엔터테인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토론했기 위해서 개발업체, 완성차 업체 및 자동차 부품업체, 브라우저 공급업체, 통신사업자 등을 규합하고 있다.

"자동차 업계와 W3C는 개방형 웹 플랫폼이 운전자와 탑승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"고 말한 제프 야페(Jeff Jaffe) W3C CEO는 "제니비의 참여는 자동차 업계 내의 다양한 기업들을 대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우리의 삶에서 웹이 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, 우리는 사회와 자동차 업계가 이러한 파트너십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제니비의 W3C 가입을 환영한다"고 덧붙였다.

"HTML5 Auto API는 오픈 소스 IVI 진영이 빠르고 간편하게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, 시험하고 혁신적 사용자 경험 개념을 생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"라고 말한 매트 존스(Matt Jones) 재규어 랜드로버 수석 기술 전문가는 "차량의 모든 신호 및 센서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완벽한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한다"고 덧붙였다.

자동차용 **HTML5 API** 는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범용 기술로 자리잡을 것이다. 한편 이들 애플리케이션의 적용 대상을 태블릿에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로 쉽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. 궁극적으로 이것은 개발업체들이 모든 브랜드에 맞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차량을 위한 새로운 개념들을 빨리 생성할 수 있는 시점과 관련하여 전환점이 될 것이다.

필리페 지켈(**Philippe Gicquel**) **PSA** 푸조 시트로엥의 조종석, 안전, 인포테인먼트 **EE** 모듈 부문 대표는 "자동차가 무선 인터넷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, 클라우드와의 정보 교환을 단순화하고 최종 고객이 자동차를 타면서 디지털 라이프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국제적 웹 표준을 활용하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 중요하다"고 말했다.

최근에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니비 회원 총회에서 **W3C** 이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알렸다. 제니비의 4 개 대표 회사(**BMW, PSA, 재규어 랜드로버** 및 **마그네티 마렐리**) 이외에도 자동차 업계의 대표적 기업들이 추가로 이 그룹에 참여할 것이다.

제니비 연합 소개

제니비 연합은 차량내 인포테인먼트(**IVI**) 오픈 소스 개발 플랫폼의 광범위한 채택을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이다. 제니비는 요구사항 조정, 기준 구현사항의 실현, 인증 프로그램 제공, 활발한 오픈 소스 **IVI** 커뮤니티 촉진을 통해서 이것을 달성할 것이다. 제니비의 활동은 개발 주기 단축, 출시 기간 단축, **IVI**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비용 절감을 낳을 것이다. 175개가 넘는 회원사로 구성된 제니비의 본부는 캘리포니아 샌 래먼에 있다.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www.genivi.org를 방문한다.

연론 담당:

Craig Miner (제니비 연합의 경우)
1 248-840-8368
Cminer1@att.net